

영국 로이드선급협회로부터 시험기관 인정 획득



지난 6월 27일 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조규만소장, 영국 로이드선급협회 브라이언 헌트 한국 지소장, 방철용 로이드 서울사무소장 및 연구소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험기관 인정서전달식을 가졌다.

선급기관으로서 뿐만아니라 ISO 9000시리즈 인증기관으로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춘 로이드선급협회로부터 인정서를 획득함에 따라 우리 연구소는 선박에 사용하는 격벽, 갑판, 방화문 등의 내화시험을 IMO(국제해사기구) 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시험기관 인정은 EN 45001, 2(유럽의 시험소 운영 및 평가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 등 연구소 운영과 시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따라 국내 조선기자재 생산업체가 외국기관에 의존해야하는 성적서 발급업무를 우리 연구소에서 대신함으로써 경비절감을 통한 대외 무역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시험연구 및 인증기관으로 발돋움할 목표를 세우고, 급변중 공업진흥청 내 국가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KOLAS)의 인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FILK 인증품 보험료 할인혜택

화재보험요율서의 개정('94. 7. 12)으로 FILK 인증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신설되어 '94. 8. 16일자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FILK 인증을 획득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소화설비 및 불연내장재를 사용한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의 도입과 불연재료, 내화피복, 건물 구조급별 판정에 있어서 보험요율서에 지정된 이외의 신소재 등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에서 인정받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보험계약자는 FILK 인증품인 소화설비를 시설할 경우 각 설비별로 기본보험료의 0.4~7.5%, 불연내장재료로 시설할 경우 기본보험료의 5~10%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금번 FILK 인증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은 우수한 품질을 가진 방화제품의 사용확대를 촉진하므로써 화재와 손해를 경감시키는 등 보험산업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손해보험회사 및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 개소 8주년

연구소는 지난 4월 11일 개소 8주년을 맞아 정왕선 이사장, 엄만섭 전무, 조규만 소장 및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당에서 개소 기념식을 가졌다.

정왕선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업무를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제 연구소도 국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개소 첫해인 1986년에 시험 실적이 85건에 불과하던 것이 93회계연도에는 시험 2,352건, 인증



12개업체 49품목, 용역 27건 등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며, 또한 내무부, 수산청, 해운항만청, 국립건설시험소, 노동부 등으로부터는 국가대행 시험기관으로, 충청북도, 경기도로부터는 주택자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영국 로이드선급협회로부터 시험기관 인정을 받아 국제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음향시험동과 건재시험동 신축

지난 6월 2일 연구소 내에 음향시험동과 건재시험동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신축되는 음향시험동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연면적 339㎡의 철골콘크리트 건물로서 벽체 및 바닥용 건축구조부재 및 재료의 차음흡음성능을 측정하는 시험장치로서 잔향실(3실)과 시험체 제작장 및 계측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험시설은 건축물의 칸막이벽, 아파트 등의 세대간 경계벽, 바닥판의 차음성능과 각종재료의 흡음 성능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시험 시설이다.

그동안 연구소는 건축업계로부터 기존의 방내화시험 뿐 아니라 차음, 열 등 환경시험에 대해서도 연구소가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업계에 편의를 주도록 요청받아왔다.

또한 건재시험동은 지상 1층 292㎡ 규모의 철골구조물로서 건축부재의 환경 및 IMO(국제해사기구)

격과 관련한 각종 시험체를 제작 양성하는데 이용될 예정이다.

IMO 국제회의 참가

연구소의 이두형 대리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제39차 방화소위원회(MSC/FP)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참가는 선박 방화관련제품 인정시험기관인 우리 연구소가 국제기준 제·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선진 정보수집을 통하여 선박용품 관련시험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참가한 것이다.

또한 회의가 끝난후 자료조사 및 업무협의를 위해 연구소가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영국의 로이드선급본부와 유관 방재기관인 LPC/Lab도 방문하였다.



석안회 등 연구소견학

지난 3월 18일 연구소 강당에서 석유화학 안전관리 위원회(석안회)의 제13차 실무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석안회는 여천, 울산, 대산지역의 대형 석유화학공장의 안전담당 관리자급으로 구성되어 회원 상호간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조와 정보교환 등의 목적으로 한 협회의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연구소의 후원아래 석안회 회원 및

내무부 관계공무원 등 39명이 참석하였으며, 실무회의와 간담회를 끝낸 후 연구소의 시험시설도 견학하였다.

한편 금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연구소 견학자는 99명에 달하는데, 주요견학자로는 아시아 지역 상위 보험회사 관리자 15명, 내무부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41명, 럭키화재해상보험(주) 신입직원 31명, 그리고 충주 산업대 교수 12명 등으로 새로 제작된 연구소 안내 슬라이드 시청과 함께 시험시설을 견학하였다.



미국 UL연수

연구소 이복영 과장대우(방재설비부)와 성시창 대리(방화구조부)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31일동안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UL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화재 및 도난경보시스템분야와 건축구조재의 방·내화 분야의 선진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었다.

FILK인증사후관리계약체결 늘어

연구소의 증점 업무중 하나인 인증업무가 4월 이후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다. 삼우금속(주)의 축압식 소화기 1품목에 대해 지난 4월 인증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삼화통신공업(주)의 내화충전구조 1품목 한국 마이크로닉(주)의 내화충전구조 4품목, 그리고(주)해룡실리콘의 내화충전구조1품목에 대해서

도 계약을 체결하므로서 현재 총 12개업체 49품목이 사후관리되고 있다.

앞으로도 FILK 인증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MRC 남순일박사, FMI 도요다씨 연구소 내방

FMRC의 남순일박사와 FMI 도요다씨가 지난 9월 28일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소와 FMRC의 상호인증 협정에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개최된 회의에서는 상호인증 가능분야, 인증 방법, 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10월말경에 FMRC 인증국의 담당부장이 내방하여 구체적인 방



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는 FMS(Factory Mutual System)내의 연구소로서 국제적 명성을 가진 인증기관이다.